

삼성정밀화학, 정년 58세로 연장

1년 연장해 급여 80% 지급 ... 임금은 동결하고 격려금 부활

삼성정밀화학 노사는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직원 정년을 58세로 1년 연장하고, 연장기간 동안 급여의 80%를 지급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.

2009년 임금을 동결하되 2008년 말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서면서 없어진 생산성격려금(PI)과 초과이익분배금(PS)을 연말 영업실적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.

이와 함께 <초일류 정밀화학사 도약 격려금>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고, 종합건강진단비를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리는 등 각종 보조금 인상에도 합의했다.

삼성정밀화학 관계자는 “성과급 지급은 영업실적에 따라 유동적이고 계열사별로 결정하는 사안”이라며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 해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0/06>